뉴스인사이드 | 전파만 타면 순위 쑥쑥

‘슬의’ OST…놀면 뭐하니? ‘싹쓰리’ 올킬

방송 음원 전성시대

‘멜로가 체질’ OST도 대표적 수혜
음원이용량 줄어도 OST는 13%P↑
“‘싹쓰리’ 강세 무도가요제 연장선”

‘다시 여기 바닷가’, ‘여름 안에서’, ‘아로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거야’….

21일 오후 현재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의 ‘24Hits’ 차트 상위권에 오른 곡들이다. ‘24시간 누적 재생량’ 기준 최다 ‘다시 여기 바닷가’와 함께 다섯 번째 ‘여름 안에서’는 MBC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이효리·비가 결성한 그룹 싹쓰리의 노래. ‘아로하’(아홉 번째)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열두 번째)는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슬의), 그리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거야’(스물두 번째)는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OST 수록곡이다.

이처럼 최근 음원차트에서 방송을 통해 선보인 노래가 힘을 발휘하며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방송가와 가요계에서는 이전에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으로 바라본다.

● “OST 인기? 차트 공동화의 수혜?”

대표적 방송 음원인 OST의 2015~2019년 인기 흐름은 최근 현상을 도드라지게 한다. ‘응답하라 1988’의 ‘걱정 말아요 그대’(이적·2015년), ‘태양의 후예’의 ‘이 사랑’(다비치·2016년), ‘도깨비’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에일리·2017년), ‘키스 먼저 할까요?’의 ‘모든 날, 모든 순간’(폴킴·2018~2019년)뿐, 대부분 OST는 드라마 방영 시기 ‘반짝’ 인기를 얻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tvN ‘사랑의 불시착’과 함께 일부 수록곡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드라마 종영과 함께 차트에서 밀려났다.

흐름은 ‘슬의’로부터 달라졌다. 드라마가 막을 내린 5월28일 이후에도 기세를 잃지 않고 있다.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거야’도 지난해 여름 이후 스테디셀러가 됐다.

김진우 가온차트 수석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차트 공동화(空洞化)”를 요인으로 꼽았다. “특정 가수가 차트 상위권에서 음원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사이, 공백을 드라마 OST가 메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온차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음원 이용량(400위권 기준)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지만, OST 점유율은 13.1%P 늘었다. “감염병 여파로 가수 컴백이 보류 혹은 연기되면서 음원 차트를 주도할 만한 신곡이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다”고 김 위원은 바라봤다. 그는 따라서 가수들의 신곡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음원차트 개편, 영향은 어디까지?”

싹쓰리의 강세도 엇비슷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김 위원은 “시청자가 이전 ‘무도가요제’의 연장선상 노래로 바라보려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매주 같은 노래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음원 소비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원차트 개편과 맞물린다는 시선도 나온다. 멜론은 6일부터 실시간 차트를 개편해 24시간 누적 재생량을 기준으로 하는 ‘24Hits’를 도입해 실행 중이다. 실질적인 음원소비량을 집계해 이용자 취향에 기반한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최영균 대중문화평론가는 “아이돌이 차트 상위권을 점령하는 ‘줄세우기’나 일부 사재기 의혹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 “방송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지만 이에 기댄 음원이 차트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독과점? 다양화?’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가 가요계를 휩쓸면서 극과 극 시선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 MBC

“‘싹쓰리’는 기존 가수들과 출발선상이 달라”

‘놀면 뭐하니?’ 노출에 볼멘소리
“컴백 가수들, 영향 받을 수밖에”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가 이름처럼 국내 음원차트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우려와 기대의 시선을 동시에 받고 있다. 파급력이 큰 MBC ‘놀면 뭐하니?’가 톱스타와 화려한 프로듀서진을 앞세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쓴소리가 나오는 반면 한동안 사라진 혼성그룹 음악을 재조명해 대중문화의 다양화에 일조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싹쓰리는 가수 이효리·비, 방송인 유재석이 5월부터 ‘놀면 뭐하니?’를 통해 결성한 그룹이다. 25일 데뷔를 앞두고 타이틀곡 선정, 음반·뮤직비디오 제작 등 과정을 방송에서 공개했다. 11일 선공개곡 ‘여름 안에서’를, 18일 타이틀곡 ‘다시 여기 바닷가’를 선보여 각종 음원사이트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데뷔 무대 이후 멤버별 솔로곡도 연이어 발표한다.

가요계에서는 “(다른 가수와)출발선상이 다르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놀면 뭐하니?’에서 두 달여 동안 노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한 데다 대중에게 이미 낯익은 이효리·비·유재석의 조합이 이름을 알리는 것부터 ‘숙제’인 기존 가수들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 가요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컴백하는 가수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제로 가요계에서 이들의 데뷔 일정을 신경 쓰는 분위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예능프로그램의 음원 발매나 인기 드라마 OST 등처럼 ‘방송과 음원의 결합’이 음원시장의 굵은 줄기가 된 지 이미 오래라는 시선도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기존에 없던 문화를 끄집어내는 게 방송의 고유 역할”이라며 “최근 자취를 감춘 혼성그룹 음악의 신선함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계속 팀을 유지하지 않는 ‘한시적’ 그룹임을 명시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몽환적인 조이’

‘인형 같은 외모!’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조이가 패션잡지를 통해 팔색조 매력을 뽐냈다. 한 패션잡지의 표지 모델이 된 조이는 이번 여름 화보를 진행하며 사랑스러움부터 섹시함까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매력을 모두 공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몽환적인 분위기의 조이다. 흰색 미니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인형과 비슷하다. 사진제공 | 싱글즈

BTS, 일본도 접수…연일 신기록 경신

첫 주 56만장…男 해외가수 판매 1위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 연속 1위도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일본에서 선보인 앨범으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 활동을 전혀 펼칠 수 없지만, 글로벌 파워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뤄냈다.

21일 일본 오리콘 뉴스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15일 일본에서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 ~더 저니~’(MAP OF THE SOUL : 7 ~THE JOURNEY~)로 첫 주 56만4000장을 팔아치우며 해외 남성 아티스트 역대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동방신기가 2010년 발표한 베스트 앨범 ‘베스트 셀렉션 2010’의 첫 주 판매량 41만3000장을 넘어선 수치다.

이 같은 기록은 이미 예상됐다. 이들은 발매 첫날 45만장을 팔아치우며 해외 아티스트 최다 판매량을 썼다. 일본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에서도 6일 연속 1위를 이어가며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오리콘은 “방탄소년단 일본 4집이 최신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에서 1위로 데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에서 정상에 오르는 것은 여섯 번째다.

이와 함께 세계 팝음악의 양대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와 미국 빌보드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서 발표한 앨범으로는 역대 최고 순위인 56위로 18일자 최신 오피셜 차트에 진입했다. 또 ‘오피셜 앨범 다운로드 차트’ 7위, ‘오피셜 앨범 세일즈 차트’ 41위 등을 기록했다. 멤버 정국이 작곡에 참여한 수록곡 ‘유어 아이즈 텔(Your eyes tell)’은 ‘오피셜 싱글 세일즈 차트’와 ‘오피셜 싱글 다운로드 차트’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미국 빌보드 차트 공식 트위터 계정도 이날 ‘빌보드200’에서 “이번 주 115위로 데뷔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4

김민석 휴가기간 압구정서 ‘몰카범’ 잡아



김민석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하루 앞뒀던 연기자 김민석(30)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몰카범’을 동료 손민호와 함께 잡은 사실이 알려졌다. 소속사 리스펙트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김민석이 군 마지막 휴가 기간이었던 1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남성을 손민호와 함께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히 김민석은 디지털 성착취물 팬데믹 근절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민석은 20일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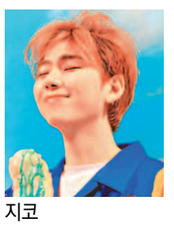
‘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정식재판 받는다



양현석

억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프로듀서가 정식 재판을 받는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양현석 전 대표를 16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표를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약식기소에 이의를 제기, 정식 재판을 연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다. 첫 공판기일은 8월14일 열릴 예정이다.

지코 30일 입소…사회복무요원 근무



지코

가수 지코(우지호·28)가 입대한다. 21일 소속사 KOZ엔터테인먼트는 “지코가 30일 훈련소에 입소, 일정 기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룹 블락비 멤버 출신인 지코는 현재 육군 복무 중인 태일과 유권, 의무경찰인 비범에 이어 네 번째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지코는 2011년 블락비로 데뷔해 ‘난리나’, ‘베리굿(Very Good)’ 등으로 인기를 모았다. ‘아티스트’, ‘유레카’ 등 솔로가수와 프로듀서로도 명성을 얻었다. 현재 엠넷 ‘I-LAND(아이랜드)’에 멘토로 출연 중이다.

전소미, 인터스코프레코드와 계약…美 진출



전소미

가수 전소미가 미국시장에 진출한다.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21일 “전소미가 세계적인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 인터스코프레코드와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전소미는 미국무대를 겨냥하는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인터스코프레코드는 1990년 설립돼 에미넘, 마룬5, 마돈나, 레이디 가가, 빌리 아일리시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소속 가수로 무대에 나서고 있다. 전소미는 2016년 엠넷 ‘프로듀스 101’에서 1위를 차지한 뒤 걸그룹 아이오아이(I.O.I) 멤버로 활동했다. 22일 신곡 ‘왓 유 웨이팅 포(What You Waiting For)’를 선보인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